

민 지 실 음 혜 천	<h1>BUDDHANARA</h1>	FAITH WISDOM ACTION
--------------------------------	---------------------	---------------------------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佛性을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첫째주 일요일 법회는 쉽니다.

둘째주 일요일 11시 전법기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법회는 쉽니다.

넷째주 일요일 11시 4월 기도 및 법문 법회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urday 10am. (매주 토요일 10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법구경: -

부처님 탄생 기쁜 일이고,
부처님 가르침 기쁜 일이고,
부처님 제자들 화평하니 기쁜 일이고,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 행복하다네.

Happy is the birth of a Buddha, happy is the teaching of DHAMMA, happy is the harmony of his follows, happy is the life of those who live in harmony.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8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4월 8일 탄신 100주년 맞아 석주스님의 생애와 사상 '재조명' 학술대회 열린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한 종단 주요소임을 두루 거치며 근현대 한국불교의 초석을 다진 우리시대의 큰 스승 석주스님(1909~2004.사진)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하는 법석이 열린다. 석주정일문도회(대표 월호스님)와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스님)은 석주스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 오는 4월 8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기념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조계종 총무원장과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한 석주스님은 어린이 포교에서부터 노인복지, 군포교, 교육불사, 역경사업, 종단행정 등 근현대 한국불교사에 원력이 미치지 않은 분야가 없다. 때문에 이번 학술회의는 근현대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석주스님의 뜻을 기리고 한국불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비롯해 교육, 포교, 종단개혁, 근현대한국불교 등 5개 주제로 나눠 발제가 이뤄진다.

이날 행사에서는 석주스님 문도를 대표해 송운스님(운양 보문사 주지)이 '석주스님의 생애와 사상', 홍윤식 교수(동국대 일본학연구소 소장)가 '석주 큰스님과 종단개혁불사', 김선근 교수(동국대 인도철학과)가 '석주 큰스님과 교육불사', 고명석 연구원(조계종 포교원 선임연구원)이 '석주

큰스님의 포교활동', 법진스님(한국불교선리연구원 원장)이 '석주 큰스님과 한국불교근현대사'를 주제로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회의에 대해 송운스님은 일생을 포교와 역경, 도제양성에 몸 바치셨던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고,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하는 것이 후학의 도리"라며 "2006년 봉은사 세미나에 이어 이번 학술회의는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체계적으로 큰스님의 사상과 행적을 조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진스님도 "석주스님의 사상과 업적을 재조명하고 새롭게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의무"라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되는 논문은 <석주스님 기념문집>으로 발간돼 오는 11월 석주스님 추모제를 통해 봉정된다. 이와는 별도로 신현득 한국불교아동문학회장은 생전에 아동문학에 힘쓴 석주스님을 기리기 위해 '석주스님 기념사업회'를 발족해 보문사에 추모비를 건립할 예정이다.

석주스님은...

지난 1923년 서울 선학원에서 남전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석주스님은 1933년 범어사 불교전문강원을 졸업했다. 금강산 마하연사, 덕숭산 정혜사 등 전국 제방선원에서 정진한 스님은 이후 경주 불국사 주지,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등 여러 소임을 맡았다. 이어 스님은 1965년에는 칠보사 어린이회를 창립해 어린이포교에 큰 족적을 남겼다.

4년 뒤에는 동국역경원 부원장으로 추대돼 역경사업을 주도했으며,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고문을 맡으며 등 청소년포교에도 매진했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제 7대 조계종 총무원장과 불교신문사 사장, 조계종 초대 포교원장,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1990년대에도 동국역경원 이사장, 종단 개혁회의 의장 등을 역임한 스님은 지난 2004년 11월 14일 오후 운양 보문사에서 법랍 81세, 세납 96세를 일기로 원적에 들었다.

[불교신문 2413호/

3월 29일자]

한국불교 세계화 중장기 전략 짜야 /<下> 해외포교 과제

해외 사찰 종단등록 유도도 활성화 모색, 특별교구 신설, 안정적 재원마련도 절실

지구촌 시대를 맞이했다. 불교 또한 '아시아 시대'를 접고 '지구촌 시대'에 들어선지 오래다. 티베트·베트남·일본 불교의 서구 진출이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중국 불교 또한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인에게 한층 가깝게 다가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불교의 해외포교는 성과보다는 숙제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난해 종단에서는 총무원과 포교원으로 이원화됐던 국제 업무를 총무원 사회부 국제팀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사찰의 요구가 승적.예산.인력.연수.포교 등 다양해 관련

부서들의 유기적인 협조는 여전히 숙제이다. 현재 국제팀은 중단 홈페이지를 통해 포교에 활용할 수 있는 영역(英譯) 자료 제공은 물론, 해외 사찰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중장기 대책 마련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해외 사찰의 중단등록을 유도하는 것도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작업 가운데 하나이다. 양정술 국제팀장은 “중단 등록은 그동안 해외사찰의 문제로 지적된 창건주 또는 창건한 스님의 임기 보장문제를 중단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교구 신설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5년 5월 총무원장으로는 처음 미국 순방에 나선 법장스님이 해외교구 신설을 추진했지만 갑작스러운 입적으로 현실화 되지 못했다. 현 총무원장 기관스님도 2006년 1월 뉴욕사암연합회장 휘광스님에게 해외교구 신설 건의를 받고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과제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다. 물론 현지 사찰에서 자급(自給)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최소한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일부라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중단 1년 예산 가운데 해외사찰 지원보조금은 포교자료 발송비를 제외하고 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137개 해외사찰에 균일하게 분배하면 사찰당 연간 20만원이 안 되는 금액이다. 그렇다고 중단 예산을 대폭 늘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일부에서는 “군중교구 처럼 해외교구가 신설된 후 후원회를 조직하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조직과 재정 같은 하드웨어와 함께 소프트웨어 구축도 중요한 과제이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스님들에 대한 교육이 구체화돼야 한다.

매년 국내에서 진행되는 본말사 주지연수 참가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미주·유럽 등 지역별로 해외사찰 주지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연수를 통해 수행을 점검하고 포교 방안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지 문화와 충돌하지 않고 효율적인 포교를 진행하도록 해외사찰 스님들에게 해당 국가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한국대사관이나 한국문화원에 한국불교에 대한 홍보작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문화원 사업에 한국불교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배치되도록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해 알린다면 현지 사찰을 찾는 외국인들의 발길도 늘어날 것이다.

한국불교의 세계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미주와 유럽 등에 집중됐던 한국불교가 이제는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아프리카 등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동안 이역만리에서 외롭고 힘들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 스님들이 신심 갖고 포교 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당장 물질적 지원이 어렵더라도 중단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해외포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인 것만은 분명하다.

[불교신문 2399 호/

2월 6일자]

불교방송 “마음의 향기” 12월 6일 방송분

어린 시절부터 지혜를 닦읍시다.

어린이 범죄나 청소년 범죄가 예전만큼 활성화 되지 못한 것을 일년에 한 번씩 한국을 찾는 소납도 피부로 느낍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학교와 학원 공부로 너무도 바쁘기 때문에 범죄에 참석하는데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고들 합니다.

불국사가 있는 미국의 중부도시의 세인트루이스에도 한국에서 온 조기 유학생들이 요 몇 년 새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부모 품을 떠나 유학의 길에 접어든 학생들이 외로움과 공부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 탈선이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학생을 만날때마다 안타까운 마음 가득합니다.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는 평생을 두고 치료를 해야 될 지도 모릅니다. 물론,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인류의 생활은 지식을 바탕으로 대부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란 참 지혜가 아니라는 점을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불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불본행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고 늙고 죽음은 큰 바다이거늘, 지혜는 빠른 배가 되며, 밝음은 큰 어둠이 되거늘, 지혜는 밝은 등불이 되며, 모든 얽매임은 더러운 병이 되거늘, 지혜는 좋은 약이 되며, 번뇌는 가시 수풀이거늘, 지혜는 다리가 되나니, 이러므로 마땅히 지혜를 부지런히 닦을 지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듯이 지혜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고통의 괴로운 바다를 건너는 배가 됩니다.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밝은 법을 배우고, 부처님이 말씀한 밝은 지혜를 자신에게서 찾아낼 수 있는 바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배도 내가 타고 내가 저어가야 하는 것이요, 다리도 내 발로 건너야 하듯이 부처님의 밝은 지혜의 법은 각자가 마음을 닦아 나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서는 지식을 연마하고, 사찰에서는 지혜로운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해 나간다면 능히 자신에게도 이롭고 인류에게도 이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불자님들은 자녀들을 지식만을 닦는 도구로 만들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부처님 품 안에서 지혜를 닦을 수 있도록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해외에서든 국내에서든 근교 사찰에서 여는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꼭 인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 세인트루이스 불국사 주지 선각 스님 -

법회소식 NEWS

- 부처님 오신 날 이 한달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양력 5월 12일 (음력 4월 8일) 은 2552 번째 맞이하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 인 “부처님 오신 날” 입니다. 불국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이 평일날 인 관계로 5월 4일 7일 기도 입재, 5월 11일 7일 기도 회향 및 봉축 법요식이 있겠습니다. 7일 봉축 기도 후에 연등은 1년간 법당에 올립니다. 2552 번째 맞이하는 연등 불사에 모두 동참하실 수 있도록 신도님들은 본인 가족은 물론이고 이웃들에게도 연등 기도 동참을 권선힬 주십시오. “일년 연등 동참금은 미국에서는 100불이고, 한국에서 동참하시는 일년등은 10만원입니다. 돌아가신 불들을 위한 영가 일년 연등도 동일하게 100불 입니다.
- 불국사 주지 선각 스님이 후원회 법회 및 석주 큰스님 학술회 참석으로 인해 한국으로 일시 귀국하므로 4월 첫째주와 3째주 법회는 쉽니다. 둘째주 법회는 회장님 주최하에 법회를 하십니다. 법회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 4월 8일은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한국 불교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강석주 큰스님의 생애와 사상 “재조명” 학술회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다음날인 4월 9일은 서울 칠보사에 “강석주 큰스님 탄신 100주년 법회”가 열립니다. 한국에 계신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4월 13일 일요일 오후 2시에는 선각 스님이 종로에 위치한 대한 불교 조계종 청사 건물인 한국 불교 역사 문화 기념관 공연장에서 “해외 포교의 중요성과 불자들의 역할” 을 주제로, 해외 포교를 통한 수행 정진 을 깨달음으로 승화함과 동시에 미국 땅에 불국정도 건설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미국 현지 포교 사례와 경험 및 최근 포교 자료를 중심 및 미국 포교의 비전을 중심 주제를 가지고 법회를 가집니다. 이날 “미국 불국사 (Buddhanara Temple) 특별 법회” 사회 및 찬불가 공연은 “머루와 다래” “어린이 공연단”이 합니다. 법회에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계신 불국사 후원회 및 관심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불국사 주지 선각 스님이 4월 15일 오후 6시 30분부터 1시간 반 동안 “양영 디지털 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상대로 “인생특강”이 있습니다.
-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불국사 총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신 보광 이진욱 거사님께서 한국으로 귀국하십니다. 그동안 불국사 법회를 이끌어 주시고 해외포교의 일익을 담당해 주신 총무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인연이 되어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고, 한국에 가시더라도 계획하신 모든일이 부처님의 가피속에 이루어지길 축원 올립니다.

3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472 번 계미생 임원석, 473 번 임오생 김기숙, 474 번 정미생 임명숙.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2째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 세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과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붓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정도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한 평에 \$1080.00 입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3월 한 평 불사 동참자: 갑신생 Debra Tak (탁순자), 법륜월 장지영, 병신생 최숙자, Jongwon Chung 신해생 정중원, 병인생 이재원, 기미생 배성호, 갑신생 보현심 이혜산, 기유생 김상현, 경술생 김재현, 갑진생 최상춘, 을해생 김길선, 정유생 이창원, 기해생 원종철, 임오생 조영선, 임오생 김옥수, 병술생 서지혜, 무진생 이정훈, 경오생 이정호, 갑진생 강영철, 임인생 신희창.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불국사 회장님이나 총무님, 또는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 회장님 및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Buddhanara Temple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